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89)

성대사불규소리

成大事不規小利

큰일을 이루려면 작은 이익을 꾀하지 않는다.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세상이 혼란하고 변화가 일 때면 많은 인물이 나온다. 그리고 그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창안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그런데 지금 2차 대전 후 세계를 지탱해 온 UN 국제 협조라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공격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관세정책으로 기존 무역 관행을 무시하더니, 2차 대전 후 국제적으로 논의와 타협으로 만든 UN의 여러 기구에서 탈퇴하였다. 더 나아가서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겠다고 한다. 중국도 대만을 공격하겠다고 연일 시위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된 국제질서는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가 얼마나 지속된 다음에 새로운 질서가 생길지 가늠할 수 없다. 또 새 질서는 어떤 것일지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인류는 그동안 혼란이라는 불안한 시대를 겪으면서 이를 끝내고 다시는 불안한 시대가 오지 않을 질서를 구축하며 결국 노력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며 결국 누군가에 의하여 인류의 염원을 모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왔다. 그런데 이번 에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변하는 세상을 보면서 문득 원(元) 왕조 말기가 생각났다. 원왕조 말기는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혼란한 시대였다. 몽고족에 의해 건설된 세계제국이 무너지고, 다시금 종족별 국가가 생기는 국제질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변화는 당시에는 도적떼로 불리던 홍건(紅巾)을 두른 무장 세력이 등장한 데서 시작되었고, 이들에 의하여 새 질서가 생기기까지는 극도로 혼란하였다. 물론 기존 질서의 중심인 원왕조를 위하여 목숨을 건 충신들도 적지 않았고, 원왕조도 이를 막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어쨌거나 원말(元末)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 질서를 만든 사람은 명(明)왕조를 건설한 주원장(朱元璋)이다. 주원장이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해 나갔을까? 주원장은 세계제국 원(元)의 통치력 상실이라는 상황에서 유행한 역병(疫病)으로 가족을 거의 잃자 먹고 살기 위하여 탁발승(托鉢僧)이 되었던 사람이다. 다시 그는 3년의 탁발생활을 거친 끝에 곽자흥(郭子興) 세

력으로 들어갔는데 내부 세력 간의 충돌로 곽자흥이 죽는다.

이렇게 약해진 곽자흥 세력을 보고 있던 유복룡(劉福種)이 이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합쳐 보려고 곽자흥의 아들인 관천서(郭天錫)를 도원수(都元帥)로 하고 장천우(張天祐)를 우부원수(右副元帥)로 하고 주원장을 좌부원수로 삼았다. 이때 유복룡은 이미 송(宋)을 건국하고 연호를 용봉(龍鳳)이라고 선언한 상태였으니 당시에는 그가 제일 강한 세력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주원장은 “대장부가 어찌 다른 사람에게 통제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속으로는 유복룡에게 구애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졌지만 당시 곽자흥에 속하였던 여러 장수들의 분위기는 유복룡이 약해진 자기들을 성원할 것을 기대했는지 유복룡의 말을 좇는 분위기였으니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유복룡도 곽자흥의 잔여세력을 끌어다가 자기 세력을 불리려는 것이었지 결코 곽자흥의 세력을 성원할 처지도 아니었다. 결국 그것은 말뿐이었으니 곽자흥의 잔여 세력은 독자적으로 진로를 개척해야 할 처지였으니 주원장의 판단이 맞다.

그러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시 주원장의 군대는 겨우 화주(州)라는 작은 지역의 서남쪽에 있는 조그만 영채(營寨)를 가지고 있었고, 그 위에 군량(軍糧)까지 결핍된 상태였으니 당장 군량을 구해 오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다. 그래서 주원장은 여러 장수들과 장강(長江)을 건너서 군량을 구해 오려고 생각하였지만 장강을 건널 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때 하늘이 도왔는지 소호(巢湖, 安徽省 合肥市)에서 배 1만 척을 가진 조보승(趙普勝) 등이 자기들 사정으로 주원장에게 귀부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그는 우저기(牛渚磯)를 뚫았고 내진강에 드디어 채석(采石)까지 차지하니, 장강에 이어 있는 지역에서는 제풀에 항복하고 주원장에게 넘어왔다. 결국 이 계획은 성공하였다.

그 다음이 문제였다. 원래 출발점은 화주에 군량이 결핍하였으므로 이 목표만을 이루려면 이미 확보한 강남지역에서 군량을 빼앗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 장수들은 물자를 가지고 물자가 귀핍(匱乏)한 그들의 근거지인 화주로

각기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원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만약에 여기서 군사를 가지고 다시 화주로 간다면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강남지역을 넘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그렇게 애써 구하였고, 강남으로 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모든 배의 돛줄을 끊어버렸다. 돛줄이 끊긴 배들은 급하게 흐르는 장강으로 밀려 들어가 그 많은 배들은 순식간에 다 떠내려 가버렸다. 이를 본 여러 장수들은 놀라서 그 연고를 물었다.

이때 주원장은 아주 간단히 대답한다. “큰일을 이루려면 소리(小利)를 얻으려고 꾀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서 태평(太平, 安徽省 黃山市)까지는 아주 가까운데 이를 버리고 빼앗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을 하겠는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다.

주원장이라고 어찌 그 많은 배를 버리고 싶었겠는가? 그러나 이를 버리지 않으면 결국 다시 옛날 근거지였던 아주 조그만 화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군소세력으로 머물다 언제 어떻게 다른 세력에게 점거될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일을 위하여 매진하려고 한 것이다. 영웅의 태도였다. 그 13년 후인 1368년에 주원장은 명(明)을 건국하고 영웅 쿠빌라이가 세운 세계제국인 원(元)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동아시아의 300년간의 새 질서를 만든다.

앞서 말한 미국, 러시아, 중국이 각자 소아적 자국이익을 내세우면서 국제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것은 그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에서 나온 해프닝인지 알 수 없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전시대에 없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 이른바 AI의 등장은 기존의 사고를 무너트리고 있다. 그리고 보면 여러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기존의 질서와 관념이 무너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 그 바탕은 사람이고, 기술이 바뀐다고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은 주원장처럼 소리를 버리며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얻으며 이들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아닐까?



권태정 전 뉴욕중앙일보 사장



논리정연(論理井然)

논할 논. 다스릴 리. 우물 정. 그럴 연. 말이나 글이 짜임새가 있고 조리가 있다는 의미

능서불택필(能書不擇筆)

능할 능. 글서, 아니 불. 가릴 택. 붓 필.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경지에 오른 사람은 도구나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유래: 당나라 때 서도의 대가 저수량은 평소 좋은 붓과 먹이 없으면 글씨를 쓰려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수량이 서도의 대가 우세남에게 “내 글씨와 구양순의 글씨를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은가?” 하고 물었다. 이에 우세남은 “순은 종이와 붓에 대해 전혀 말이 없고 아무 종이에나 글을 썼다. 어떤 붓으로도 마음 먹은 대로 쓸 수 있었다. 그대는 아직도 종이와 붓에 구애 받고 있으니 순을 따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능소능대(能小能大)

능할 능. 작을 소. 큰 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능숙하게 잘 해내는 능력을 의미함. 고대 중국의 문헌에서 유래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인물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음.

다기망양(多岐亡羊)

많을 다. 갈림길 기. 잃을 망. 양 양. -갈림길이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지 못한다는 뜻으로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열자(列子) 설부(雪符)에 나오는 말이다.

-방침이 많아서 도리어 갈 바를 모름
-유의어: 망양지탄(亡羊之歎), 기로망양(岐路亡羊)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을 다. 더할 익. 착할 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유래: 중국 한나라 시대에 유방과 한신의 대화에서 장수가 병사를 거느리는 능력에 대해 말하다가 유방이 한신에게 “너는 얼마나 거느릴 수 있나?”라고 묻자 한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답했고, 유방은 “그런데 너는 왜 나의 부하가 되었느냐?”라고 묻자 한신은 “폐하가 병사를 잘 못 거느리지만 장수를 잘 거느리시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원래는 군사적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자원, 인력, 기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단기지계(斷機之戒)

끊을 단. 베를 기. 갈지, 꺾할 계. 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자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음을 경계한 말

유래: 맹자(孟子)가 학문을 닦는 도중에 학업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가 짜고 있던 베의 날을 끊으며 학문을 중도에 그만 두는 것도 이와 같다고 훈계했다. 맹자는 이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다시 돌아가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단사표음(單食瓢飮)

대관주리 단. 음식 사. 표주박 표. 마실 음. 대나무 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 밥은 밥 식, 밥 사로 여기서는 사로 읽음. 아주 소박한 음식과 물로 살아가는 생활을 의미하며 검소하고 절제된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말. 논어(論語) 용어(雍也)편에서 유래하였음.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안회(顏回)는 매우 가난하였으나 학문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 공자는 이런 안회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칭찬하였다. “어질도다 안회여.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살아가면서도 결코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이처럼 단사표음은 가난 하더라도 학문과 덕을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함.
유의어: 안분지족(安分知足), 청빈낙도(淸貧樂道)

추밀공파 문충공계 양정공 제향 봉행

추밀공파 문충공계 양정공 제향이 1월 16일 충주에 위치한 양정공 부조묘(不桃廟)에서 권오협 문충공 회장 등 50여 명의 직손이 참제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됐다. 양정공(襄靖公, 軀, 19世)은 문충공 양촌 권근의 증손으로 무락이 뛰어나 조선초기 무과에 1등으로 합격하여 국난이 임할 때마다 권도를 살피 정난 공신(靖難功臣) 공신록에 오른 문충공의 정부 좌찬성에 이르고 북성군(福城君)의 군호까지 받았다. 시호(諡號)를 양정(襄靖)이라 하였는데, 일로 인하여 공(功)이 있는 것을 ‘양(襄)’



이러 하고, 자기를 공경히 하여 말이 적은 것을 ‘정(靖)’이라 한다고 했다.

권오협 문충공 회장은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총회 사무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총회)